

[11 월 첫째주 가정예배]

섬겨야 할 주인

[찬송] 348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마태복음 6 장 24 절

[말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정, 생활환경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무질서한 사람이라면 그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아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자아의식의 소산인 나의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 들어있지만 뱃속에 들어와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내 머리로 운전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내 뱃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역사로 살 것이냐 하는 주권투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한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머리의 신앙을 따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뱃 속의 신앙을 따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나라에 두 주권이 있을 수 없듯이 한 몸 속에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담이 시도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적 의지를 가지셨는데 아담은 에덴동산에다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과 양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도전하는 존재는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장 24 절을 통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26 장 39 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앞에 당신 자신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당신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와 당신의 의지를 결코 양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의 정욕과 탐심, 교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에 맡긴다는 마음자세로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 낮아질 때 천국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 뜻에 거스리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정의로게 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를 택하사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5)**”

좋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이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1 월 둘째주 가정예배]

마음은 생명의 근원

[찬송] 389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잠언 4 장 23 절

[말씀]

우리 가족은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은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내가 경건하고 아름다워야 환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머리로 생각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산출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주와 삼라만상을 생산하여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만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받아 들임으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사람을 점령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에 먼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의 생각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마자 마귀가 그 생각을 좇아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생각을 통해 마귀가 들어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생각의 위생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때때로 손발을 씻고 또 일주일에 한 두번씩 정규적으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씻고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창조와 영광과 승리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보람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를 택하시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5)”

종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이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자료

[11 월 셋째주 가정예배]

아낌없는 사랑

[찬송] 509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로마서 8 장 31 절

[말씀]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면 크나큰 내적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어떤 적이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그 어떤 세력의 도전도 결코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궁핍이 겁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곳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궁핍에 대한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송사가 겁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감히 누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마귀가 다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었으니 이런 마귀의 참소를 결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사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대적이, 궁핍이, 송사가 겁나지 않으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를 택하사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5)”

종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이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으로 기쁨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1 월 넷째주 가정예배]

구원 받은 자의 언행

[찬송] 402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히브리서 8 장 6 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약속은 율법의 약속, 행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행위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만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행위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사람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세우셔서 언약을 어긴 자마다 성소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한 후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죄를 많이 짓고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늘 죄를 짓고 또한 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으므로 이것은 흠이 있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신약, 즉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사했던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무한대의 속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의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생각에 믿음의 법을 새겨 놓았으며 이제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제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아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옛 행실에 얽매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족들이 의롭게 살아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웃에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를 택하사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3-5)”

종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이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으로 기쁨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